

수원 스쿨버스 등교길 사고

교차로 회전시 과속이 원인 종합적인 교통대책 검토돼야

수원캠퍼스 분당선 통학버스
가 지난 9일 오전 9시55분경 등
교중 진행하는 사고가 있었다.
이날 사고차량은 애초 출발전
간인 8시 45분 보다 10분 늦은
시각에 43명의 학생들을 태운
출발했으며 10시 10분경에 등
교로 수직인 죽전역 1영선에서
앞 노선 이정표를 틀어박은
데 전복되었다. 이날 사고로 32
명이 부상당했으며 10명은 경
희의료원으로 후송됐다. 이중 2
명은 현재 입원중이다. 아직 사
고에 대한 구체적 원인은 밝혀
지고 있지 않지만 피해 학생들
의 진술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
대로 내건 의견은 '과속'에 의한
원천적 부주의일 가능성이
높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.
이번 사고에 대해 "이미 해진
되고 있었다"고 말하는 한 학
생은 "1단기 들어 장남상차장
이나 수원, 분당 뿐만 아니라 남

부리까지도 1교시(9시경)
의 수업용 분기위해 학생들이
실한 통학용을 빌려와 70여명
이 한꺼번에 몰려 승차하는 일이
때때 안전이 항상 우려되고 있
었다"고 일관된 교통환경에 대
한 불만을 토로했다.
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장인
전철점검, 승객안전의 윤곽이
안정되고있음의 문제가 제기 되
고 있어 이후의 조치에 귀추가
주목된다.

이에 대해 학교측은 "피해학
생들 모두 충분한 피해보상은
받은 학교수입에 대한 불이익
도 없다고 최선을 다할과 동시
에 전파적인 학교차량에 대한
점검에 들어갈 예정"이라고 밝
혔다.
한편 장남상차장의 경우, 서
초구형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
제 이후 승차장인 요구를 제
속해서 받아왔다는 차량주인

집행원에게 이에 대한 대책으
로 "사물시경으로부터 '버스'와
'학생'의 차를 받아 해결할
방안"이라며 "당분간은 별
문제가 없을것"이라고 말했다.
또한 총학생회는 학교차량
제와 관련한 제의되고 있는
한편 수원캠퍼스의 교통문제

는 명확한위기가 조성과 관련
하여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이
며, 이번사고를 계기로 종합적
인 교통대책에 대한 면밀한 분
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
다.
(한승오 기자)

PC 이용자 90%가 사용하는 '한글' 개발자 이찬진 사장

인 터 뷰

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
9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신입생
대상 강연회를 마련하고 그 첫
번째 연사로 한글과 컴퓨터의
이찬진(31)사장을 초청했다.
강연을 마친 이찬진 사장을 만
나 그의 설이기는 모습과 컴퓨
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대
한 이야기를 들었다. (편집자)

트 해어 개발분야에 처음 부딪
혔던 것은 사실이다. 그만큼 도
움을 주신 분들이 많아 좋은
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다. 나중
대만의 방법이라던 모드는 분
아였으므로 많이 풀이보고 끝
이 되었는데, 비결같은 것은 모
르지만 이런 방법이 지금까지
는 운이 좋았던 원인이었던 것
같다. 특별한 철학이라는 이름
표를 달았던 것은 없고 계속
열심히 했기 때문이다.

국내는 물론이고 외국 기
업들까지도 "한글" 프로그램의
경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
고 있는데 이에 대해 '한글'은

못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. 그러
나 미국에서 혹은 세계에서 소
프웨어를 팔아서 성공한 사

국내 PC사용자의 90%가 사
용하고 있다는 '한글'을 개발한
사람은 누구일까? PC사용자들
면 '한글'과 소프트웨어'사의 이
찬진(31) 사장을 모르는 이는
아마 없을 것이다. 지난해 1백
여명의 승이기를 올린 내로라
하는 소프트웨어사의 사장이
지만 농우와 이현세씨 안와
의 열렬한 팬이라는 그 고저의
입장에서 프로그램의 단점
적점 느끼기 위해 손에 익은
영문도스와 84기 키보드를 비
리고 한글도스와 103기 키보
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를 만났
다.

로그램의 경쟁전략은.
=현재 10개가 넘는 소프트
웨어를 개발하고 있지만 가장
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'한글'
프로그램이다. 사용자에 원하는
기능을 달아서 계속 보완해서
만들고 나간 생각이다.

많은 사람들이 신화적 준
제 혹은 '한글의 빌지오'라는
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
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.
=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
노력하여 개발한 '한글' 프로그
램의 성공을 단지 하루아침에
이러한 신기한 일 정도로

말의 진형이라는 뜻으로 한국
의 빌지오라는 평가를 내린
단어라는 생각이다.
=이제 사를을 넘기셨는데
앞으로 사업에 대한 구상도 좀
더 커졌으리라 생각하십니까.
=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
바탕으로 좀더 깊이 생각하게
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되
는 것에 서로의 의미를 두고있
다. 개인을 컴퓨터를 좀더 편하
게 행동하고 생각해서 반응하
는 것을 유심히 살펴 이를 제
제품에서 반영하고 개선시켜
야 한다.

제한을 두는것은 스스로를 가
두는 것이므로 나머지는 굳이
제한할 필요가 없다.
"사용자의 눈으로 세계적 S/W 만들겠다"
모르는건 묻고 열심히 뚫 것이 성공요인



성적 경고자 1천1백5명
작년 2학기 서울캠퍼스 성적
경고(학사경고)자는 재학생 8
천68명의 5%인 4백10명인 것
으로 나타났다.
앞으로는 학생들이 도서관을
출입할 때 바코드(Barcode)가
부착된 학생증으로 계기로 성
적한 검사에 감복을 해야 출
입이 가능하다.
그동안 출입통제는 유관기관
과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
아 미비하였는데 도서관 한 관
중 분실사고에 유의해야 할것
으로 보인다.

4월1일부터 출입통제 시작
서울캠퍼스 중앙 도서관은 나
오는 4월1일부터 출입통제 시
스템을 가동한다.
앞으로는 학생들이 도서관을
출입할 때 바코드(Barcode)가
부착된 학생증으로 계기로 성
적한 검사에 감복을 해야 출
입이 가능하다.
그동안 출입통제는 유관기관
과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
아 미비하였는데 도서관 한 관
중 분실사고에 유의해야 할것
으로 보인다.

서울캠 무역학과 계열화 반발

서울캠퍼스 계열화 작업이
난항을 겪고 있다.
서울캠퍼스는 우선 올해 경
영학과, 무역학과, 회계학과를
계열화하고 계열화할 방침이다.
그러나 현재 무역학과는 이
러한 학과목상의 계열화 방침
이 충분한 형의가 없는 일방적
인 것이어서 반발하고 있다.
한편 경영, 무역, 회계학과는
오는 6월에 학과평가를 받을
예정이다.

우즈베크 교민에 도서 기증

수원캠퍼스 우즈베크학생회는 오
는 14일까지 '우즈베크' 관련 교
과서들을 기증한다. (관원인터뷰
4면)
이번에 모았던 사물의 도서
는 공대도서관에 정리될 예정이다.

지자체 목장의 결투

에인을 구하여 정부를 신청
하자 기초단체장을 지키기
위해 민주보안군이 복속을
결정했다.
6월27일 대개봉을 앞둔 한
국산 '지자체 목장의 결투'는
과연 누구의 승리로 돌아갈
지 개봉을 기다리는 마음 초
조하된다.
한편 이의 기쁨, 남의 슬픔
기분상안은 있어 남의 집 살
림을 풍지마산으로 만들 정
도로는 흠치지 않았다는데
...
말마친 어느 도선생이 동
연과 경영시스템연구회
(AFS)의 교육 장학선 문물
교류회 교육 장학선 시스
를 열었다고
한 동아리가 3년동안 사
모는 재산을 한 순간에 걸
...

하산 도선생!
도선의 기쁨은 동아리의
슬픔으로 얻어진 것이라는
것을 아시나요?
...현열로 학우사임을
배회하며 알고있는 한
학우의 생생살리가 쇠가
과에서 한참이라는데
이 학우, 수월방법이 '현
관 수월'이라 각별한 학우들
의 애정이 필요하다고
학우의 작은 결심으로 현
열에 동참하면 한 목숨 살
리는 길 멀리서 적극적인 동참
이 필요할 듯.
...미로상의 귀비
한학우의 수경신정 파동이
지나간 듯.
잔잔해졌는가? 했던 각과에
는 이른 물결이 다시 발생했
다.
알고보면, 교수님들이 강의
시간을 변경하시는 바람에
거주 개월맞은 귀비이 영영
갈 길을 찾아 못하고 있다고
종합강의 시간으로 원대한
뜻을 아시는 교수님들.
어느 속사정 때문인지
노트구 학생 일원으로 우리들
의 약속을 지켜주지 하지 않
겠읍니까?
...꽃망이 새단장
불철을 맞아 교내 곳곳에
서 새단장이 한창이구나!
특히, 캠퍼스 곳곳에 세워
진 이정표는 뽕쟁이의 눈길
을 끌기에 족한데,
산뜻한 새모습에 보는 이
의 기분도 상쾌하지 않
고있을 때에 방목객들엔
더욱 좋은 길잡이가 될듯하
고 노트구 마음 호호하더
다.

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